

여성주의 상담원들의 여성의식 : 여성의 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는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원들의 여성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는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99명의 상담원이 참여하였고, 이들의 여성의식은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면에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남녀평등의식은 우리 나라에서 여성 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주의 정체감은 참여, 드러냄, 새겨듦, 수용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여성의 전화 상담원들의 여성의식은 연령 면에서 30대가 40대보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수용수준의 점수가 낮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임상근자가 자원활동가 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았으며 여성주의 정체감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성주의 상담의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문제제기

우리 나라에서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상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 중반부터이다(백선옥, 1985; 정소영, 1985).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심화시키고 확장시킨 것은 1983년 창립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나 1991년에 문을 연 '한

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둔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이러한 여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상담이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여성주의 상담은 그 출발부터가 특정한 이론가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

스스로가 다른 여성들을 돕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상담전문가와 내담자의 역할 구분이 분명한 전통적인 상담과는 달리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여성을 돕는 사람들 자신도 여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들 스스로가 잠재적인 내담자이면서 또 동시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예숙, 1999; 이규미, 1996)

현재 이러한 단체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로 여성운동 차원에서 상담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운동가 집단과 다른 하나는 자원활동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두 집단의 '상담'에 대한 시각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이현숙, 1986) 양 집단 모두 여성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배경을 갖는다. 이러한 입장은 상담자의 가치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문적인 상담가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주의 상담에서 여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와도 직접 관련된다. 즉 여성주의 상담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 내담자를 단순하게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체제에 도전하고 양성 평등적인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심리적이면서 사회적인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주의 상담자의 여성에 대한 태도나 의식은 실제적인 상담 기술이나 방법 못지 않게 여성주의 상담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연간 상담 내용을 보면, '아내 구타', '성폭력', '법률문제', '외도', '부부 갈등', '시집갈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이 놓여진 심리, 사회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여성주의 상담을 실천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여성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원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보편적인 여성들의 여성주의가 발전되고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했다가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한 방식으로 전임 상담원이거나 자원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가 가운데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인력이 별로 없다는 것도 본 연구의 대상을 여성의 전화 상담원으로 한정하는 것의 한 이유가 된다. 서구의 경우 상담전문가 집단 내에서 여성주의와 관련된 학회가 결성되어 있고 성과 관련된 논의가 상담학계의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대조가 된다(이장호, 1996; Seu & Heenam, 1998; Worell & Remer, 1996).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인구학적인 측면과 상담활동의 개입 정도에 따른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여성주의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들의 여성주의를 그 원인 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살펴본다는 한계가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자료는 이 분야의 기초 자료를 마련해 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 면에서 본 여성주의

'여성주의(feminism)'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커다란 틀 안에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다(이소영, 1997). 여성주의에 대한 웹스터 사전(1978)의 정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리"나 "여성이 이러한 권리를 갖기 위한 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라는 개념을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며, '여성 의식'이란 "이러한 입장을 실제 생활에서 내면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려는 노력은 성역할 및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진경(1990)이 Bem의 성역할 검사를 번안, 제작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 이후 부분적인 시도가 있었으나(김광은, 1997; 임용자, 1994)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 검사를 제작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제작된 남녀평등의식검사는 단순히 성역할에 대한 태도 측정을 넘어 가정, 교육, 직업, 사회, 문화의 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능력, 속성, 역할, 권한 및 권력에 대한 평등한 관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를 사용한 김양희와 정경아의 연구(1999)에 의하면 남녀평등의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 연령층(46세 이상)보다는 저 연령층(18~30)이,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이, 그리고 여성운동가 집단이 일반 성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 보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남녀평등의식조사(여성정책담당관실, 1999)에서도 남성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보다 이 의식이 현격하게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모든 의식의 형성과정이 그러하듯이 여성주의 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은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는 입장(Downing & Roush, 1985; Worell et al, 1992)이 있다. Downing 등은 여성주의자로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수동적 수용(passive acceptance)'의 단계로, 이 단계의 여성은 남성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갈등 없이 수행한다. 두 번째 '드러냄(revelation)'은 취업이나 출산 등 여성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더 이상 남녀가 평등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의 '새겨둠과 방출(embeddedness-emanation)'은 더 이상 여성임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네 번째 '통합(synthesis)'의 단계는 여성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독특하고 안정된 성격적 특징으로 이러한 성향을 내면화한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참여(active commitment)' 단계의 여성은 고정 관념적인 성역할 개념을 초월하여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경험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일해 일하기도 한다. Worell 등(1992)은 Downing 등(1985)의 여성주의 정체감 발달 수준의 5단계 가운데 4, 5단계를 통합하여 참여의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단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다.

Bagad와 Hyde(1991)는 여성주의 정체감 발달 척도를 통해 여성학 강좌의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이 강좌의 목적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고양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자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여성학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수동적 수용 수준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드러냄과 새겨둠, 능동적 참여의 수준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 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애선의 연구(1994)에서도 여성주의 집단상담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상담 후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수용 수준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원활동가가 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광은의 연구(1999)에서도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상담 강좌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일반 상담 강좌에 참여한 피험자보다 교육 이전부터 여성주의 정체감의 1단계 수준은 낮고 2, 3, 4단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의식은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교육 이수 후 여성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드러냄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남녀평등의식은 성이나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여성주의 정체감은 여성 의식과 관련된 생활 경험이나 교육, 훈련과 같은 자발적 개입과정에 따라 더욱 심화됨을 추론할 수 있다. 아직 이 두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실행된 연구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표 1. 여성의전화 상담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참여방식

연 령	명(비율)	학 력	명(비율)	경제수준	명(비율)
20 ~ 29	14(15)	중 졸	1(1)	상	0(0)
30 ~ 39	56(57)	고 졸	23(23)	중 상	11(11)
40 ~ 49	26(26)	대 졸	61(62)	중	48(49)
50 ~ 59	3(3)	대학원졸	14(14)	중 하	31(31)
				하	9(9)

참여형태	명(비율)	참여기간	명(비율)
전임상근	45(45)	1년 이내	40(41)
자원활동	54(55)	1 ~ 2년	20(20)
		2 ~ 3년	19(19)
		3년 이상	20(20)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여성주의 정체감의 수용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며, 평등의식이 높을 수록 드러냄, 새겨둠, 참여와 같은 이후의 발달단계와는 긍정적인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여성의 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 발달 수준을 연령, 학력, 경제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과 상담활동에 대한 개입 정도를 알 수 있는 참여 형태나 기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대 상

본 조사에는 참여한 대상은 실제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들 이었다. 이들에 대한 표집은 전국에 소개 해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개 지부에 설문 조사와 관련된 협조 의뢰를 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4개 지부를 제외한 15개 지부에서 총 125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상담원들의 일반 사

항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6개의 자료를 제외한 99개의 응답을 본 조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상담원의 평균 연령은 36.4세이고 대졸 졸업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가장 많으며 경제적으로는 중이나 중하 정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자원활동가가 전임상근자 보다 다소 많았으며 이들이 상담원으로 참여한 기간은 평균 2년 4개월 이었다.

도 구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 이 검사는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남녀 평등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여러 생활 영역 및 평등의 질 면에서 양성에 대한 평등의식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검사는 4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총 80개의 문항이 전혀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개 영역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적인 평등의식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남녀 평등한

의식을 나타내며, 조사에서 얻은 원 점수는 여성 및 남성의 성에 따른 규준에 따라 T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 이 검사의 Cronbach α 를 통한 전체 신뢰도는 .94이고, 하위 영역인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생활은 각각 .91, .90, .92, .87이다. Spearman과 Brown의 반분 신뢰도는 각 하위 요인별로 .61에서 .89까지 보고되고 있다.

여성주의 정체감 발달 척도. 이 척도는 Worell 등 (1991)이 개발한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검사를 박애선 (1993)이 번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감의 4가지 발달 단계중 수용, 새겨둠, 참여의 세 단계는 박애선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으나 두 번째 단계인 'revelation'은 '폭로'라는 용어보다 '드러냄'이라는 용어가 본래의 개념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여성주의 정체감의 두 번째 발달단계를 '드러냄'으로 명명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변인에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5~50점이다. 검사의 해석은 수용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 편견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드러냄, 새겨둠, 참여 요인들의 점수는 높을수록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여성주의 정체성에 의한 행동을 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검사의 신뢰도는 .76이다.

자료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전체 상담원의 여성 의식을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 발달 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의식을 연령, 학력, 경제수준, 참여 형태, 참여 기간 별로 변량분석 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에는 PC용 SPSS 7.5판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여성의전화 상담원의 전체적인 여성 의식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전화 상담원들의 전체

적인 남녀평등의식은 일반적인 여성 집단에 비추어 볼 때 백분위상 99%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 하위 영역별로 보면 사회문화영역이 가장 높으나 이외의 다른 영역도 94에서 9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의식은 실제 일선에서 여성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운동가 집단과 같은 수준으로(김양희 등, 1999), 우리 나라 복지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여성정책담당관실, 1999).

표 2. 여성의전화 상담원의 전체적인 여성 의식

여성 의식/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남녀평등의식			
가 정	74.8	4.9	96
교 육	74.8	4.9	94
직 업	73.9	7.3	97
사회문화	72.9	7.1	99
계	297.3	20.1	99
여성주의정체감			
수 용	1.6	0.5	
드 러 냄	4.2	0.6	
새 겨 둠	4.0	0.6	
참 여	4.3	0.9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감 발달 수준을 보면 이들은 참여, 드러냄, 새겨둠, 수용의 단계를 나타냈다. 이는 이들이 실제 여성들의 인권과 관련된 일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감을 여성의 전화 상담원이 되기 위한 예비 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과 여성 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예비 상담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김광은, 1999). 즉 예비 여성의 전화 상담원은 드러냄(3.8), 참여(3.6), 새겨둠(3.6), 수용(1.9)의 순서로, 예비 청소년 상담원 집

단은 드러냄(3.6), 참여(2.9), 새겨둠(2.8), 수용(2.4)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문제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드러냄의 단계가 가장 뚜렷하였다. 반면 이 두 집단은 심화된 여성의식을 나타내는 새겨둠과 참여의 수준은 여성의 전화 상담원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원들의 여성의식은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여성운동을 선도하는 운동가 수준이며,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감면에서 그 발달 단계상 최고의 단계인 참여 수준까지 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받아들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은 떨어지며,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드러냄, 새겨둠, 참여의 단계와 남녀평등의식과는 긍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성의전화 상담원의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과의 상관관계

		남녀평등의식				여성주의 정체감			
		수용	드러냄	새겨둠	참여	수용	드러냄	새겨둠	참여
남	녀								
여성주의 정체감									
수용	녀								
드러냄	녀								
새겨둠	녀								
참여	녀								

여성주의전화 상담원의 인구학적 변인별 여성의식

다음 표4는 여성주의 상담원의 여성의식을 연령, 학력 및 경제수준별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인구학적 변인별 분석에서 50대의 연령과 중졸의 학력, 그리고 상층의 경제수준은 해당하는 인원이 너무 작거나 없으므로 본 분석시 제외하였다.

표 4.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성의식 평균 및 F검증

	연 령				학 력				경 제 수 준				
	20-29	30-39	40-49	F	고졸	대졸	대학원졸	F	중상	중	중하	하	F
<u>남녀평등의식</u>													
가정	75.2	75.3	74.2	.60	72.7	75.5	75.8	3.10*	75.7	73.3	75.3	77.9	2.5
교육	74.5	75.0	75.0	.05	72.1	75.6	76.7	5.94*	75.5	74.1	74.5	78.5	2.0
직업	73.9	74.6	73.6	.15	71.6	74.9	73.9	1.60	73.6	73.5	73.7	76.3	.3
사회문화	69.7	75.0	71.6	4.80**	70.3	73.2	77.1	4.50*	74.4	71.1	73.9	76.2	2.1
계	294.7	301.1	293.7	1.42	287.9	299.4	303.6	3.24*	297.7	293.4	298.1	311.3	1.8
<u>여성주의 정체감</u>													
수용	1.6	1.4	1.7	4.40*	1.7	1.5	1.6	1.6	1.4	1.7	1.5	1.4	2.2
드러냄	4.1	4.3	4.2	.71	4.0	4.3	4.4	1.8	4.5	4.1	4.2	4.4	1.0
새겨둠	3.9	4.1	3.8	2.39	3.9	4.0	4.1	.63	4.1	3.9	4.1	4.6	3.6
참여	4.3	4.4	4.0	1.86	4.1	4.3	4.4	.67	4.3	4.0	4.5	4.7	2.3

**p<0.01, *p<0.05

먼저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여성 의식을 연령별로 보면 통계적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녀에 대한 평등의식은 30대가 가장 높고 20대와 40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성주의 정체감 면에서도 30대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는 가장 낮은 반면 여성주의 정체감을 발전시키는 드러냄, 새겨둠, 참여의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0대에 여성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30대라는 생활연령이 육아와 가사 등의 본격적인 여성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여성 의식을 더욱 자각하는 계기와 관련되는 것 같다.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 나라 사회 전반의 개혁의 주제로 부상되고 있는 소위 '386'이라 불리는 이들 세대의 특성이 오히려 현재의 20대보다 여성 의식 면에서 앞선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가정해 본다.

둘째, 학력에 따른 이들의 여성 의식은 남녀에 대한 평등의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고, 하위 영역별로 보았을 때 대학원 졸업자는 고교 졸업자보다 교육이나 사회문화 영역에서 더 평등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여성주의 정체감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

니나 수용 단계를 제외한 드러냄, 새겨둠, 참여의 단계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경험이 많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남녀 평등적인 기회를 좀더 많이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여건에서 성장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양성 평등적인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셋째,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경제수준에 따른 여성 의식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경제적인 면에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상담원들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한데, 이들은 남녀평등의식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성주의 정체감 면에서도 새겨둠과 참여와 같은 심화된 의식 수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응답한 상담원의 삼분의 이 이상(9명 중 7명)이 전임상근자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실제적인 봉급 수준은 매우 낮지만 여성 운동에 대한 사명감만큼은 직업적인 운동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표 5.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참여 형태 및 기간별 여성 의식 평균 및 T검증

	참 여 형 태			참 여 기 간				
	전임상근	자원활동	F	1년 이내	1~2년	2~3년	3년 이상	F
남녀평등의식								
가정	75.8	73.9	3.95*	74.2	74.1	77.5	75.7	2.28
교육	75.9	73.8	4.59*	74.5	73.7	76.7	76.3	1.80
직업	75.5	72.5	4.13*	72.6	73.5	77.9	75.1	2.27
사회문화	74.5	71.4	4.94*	71.9	72.6	75.1	75.6	1.68
계	301.9	292.8	4.87*	294.5	294.4	307.3	302.6	2.1
여성주의 정체감								
수용	1.4	1.7	6.19*	1.6	1.5	1.4	1.5	1.32
드러냄	4.3	4.1	.37	4.1	4.3	4.2	4.5	1.79
새겨둠	4.2	3.9	4.90*	3.8	4.1	4.4	4.1	2.92*
참여	4.4	4.1	1.37	4.0	4.6	4.5	4.4	2.74*

*p<0.05

여성의전화 상담원의 참여유형 및 기간별 여성의식

여성의 전화 참여 형태에 따른 여성의식을 보면 남녀평등의식의 모든 영역에서 전임상근자가 자원활동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주의 정체감면에서도 모든 단계에서 전임 상근자들의 점수가 자원활동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5). 이러한 반응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과 관련된 활동의 개입 면에서 전임상근자는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의 특성상 상담 이외에 여러 맥락에서 관여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상담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에 비해 전임상근자의 여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 한지도 모른다. 또한 서두에 언급했듯이 여성의 전화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과정 면에서 양 집단은 다소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임상근자들의 경우는 이미 여성의 전화에 참여하기 이전 여성운동에 대한 지향이나 활동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의 경우는 생활경험에 느꼈던 막연한 문제의식을 이 단체에서의 교육 경험을 통해 개발시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 집단의 여성의식 심화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된 자원활동가들의 여성의식 역시 일반 여성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여성의 전화 상담원의 참여 기간별 여성의식을 보면 전체적인 남녀평등의식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본 검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천장효과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이들은 기간과 관계없이 백분위 점수가 모두 99점에 속하고 있어 더 이상 이 검사로는 이들의 평등의식을 측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 기간에 따른 이들의 여성의식의 차이는 여성주의 정체감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담활동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의 경우는 이 이후의 상담원들보다 새겨둬, 참여와 같은 점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각

하고 이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내면화하여 행동으로까지 실천하는 과정은 일련의 시간적인 발달단계를 거쳐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는 의

지금까지 여성의 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여성의식을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 면에서 살펴 보았다. 본 조사에서 나온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하는 여성의 전화 상담원들의 여성의식은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주의 정체감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주의 상담자의 특성을 입증해 주는 고무적인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부터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상담자의 가치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며, 여성주의 상담에 적합한 상담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은 아직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불평등한 여성의 현실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주의자'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자신과 '여성주의자'임을 자칭하는 여성들과의 심리적 거리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 개선에 대한 무력감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원들은 자신의 가치를 상담장면에서 일방적으로 드러내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여성주의 상담의 기본 전체 중의 하나인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평등한 자매애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 역시 내담자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리고 또 나누는 경험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여성주의 상담은 그 나름의 독특한 기법이 개발되어 있기 보다 대부분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여성주

의적인 가치가 반영된 상담 기법의 개발과 전통적인 상담 방법 중에서도 여성주의 상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러한 방법들을 여성주의 틀 안에서 어떻게 변형시켜 나갈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상담원들의 일반 사항별 여성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학력'과 '참여형태'였다. 즉 여성주의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으며, 전임상근자가 자원활동가 보다 다소 앞선 여성주의를 보였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지식이나 생활경험 면에서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여성문제에 대한 개입 기회가 많은 전임상근자의 여성주의가 자원활동가보다 높은 것도 예상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발달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개발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는 결과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원들의 일반 사항이나 반응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상담자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및 참여 변인과 관련하여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사항을 종합해 보면 "30대에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했으며, 스스로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고, 자원활동 차원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상담원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가사와 육아에서 조금씩 해방되어 자신을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한 욕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중산층 주부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유형은 인구학적 변인이나 참여 변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종합해 보았을 때 드러난다. 즉 이들은 "30대에 속하며, 대학원을 졸업했고, 경제적으로는 스스로 하층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2년에서 3년 경력을 갖고 있는 전임상근자로서의 상담원"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문적인 여성운동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두 유형은 앞으로 여성주의 상담의 '보편성'과 '전문성'을 마련해 가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아내구타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일차적인 도움의 대상 뿐 아니라 불평등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이나 가치에 대해 무감각해 진 대부분의 여성들도 잠재적인 내담자로 가정한다. 따라서 사회참여의 욕구는 갖고 있으나 그 기회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여성의 전화에서 제공하는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내담자에서 능동적인 상담원으로 성장해 가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상담의 확산과 보편성 획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전임상근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의식은 우리 나라 여성운동을 선도할 수준이지만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현실적인 대우는 매우 낮다. 그러나 이들은 앞으로 실천적인 맥락에서 여성주의 상담 및 여성운동을 주도할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자기 계발 및 전문적인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 마련도 여성주의 상담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상담원들의 여성주의를 조사하였으므로 이들이 여성주의 상담에 입문하게 되는 심리적 동기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은 시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질적인 차원에서 상담원들의 의식변화와 관련된 변인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이론적 접근을 취하고있는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나온 여성주의 상담원의 여성주의가 이 접근을 취하고 있는 상담원만의 독특한 경향인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상담원들에게도 보여지는 보편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광은(1997),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

- 학회지:여성**,(1), 102-104
- 김광은(1999), 여성주의 상담을 위한 자원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감 발달 및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 미발표논문
-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99 연구보고서 250-4), 한국여성개발원
- 김예숙(1999).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소고. 가정폭력활동가 교육자료집, 12-19, 부산여성의전화.
- 문은희(1992). 우리나라 여성심리-서구심리학을 벗어나려는 한 시도. **여성연구(여름)**, 135-169
- 박애선(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선옥(1985), 여성상담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일 연구, **학생생활연구**, 21, 17-32,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여성정책담당관실(1999), 보건, 복지 담당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이규미(1996).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1, 한국여성심리연구회, 128~138
- 이소영 역(1995), **페미니즘사상-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 이장호(1996), 상담심리학입문 제3판, 박영사
- 이현숙(1986), 상담사업인가, 여성운동인가, **배틀**, 16, 여성의 전화
- 이혜성(1998). **여성상담**. 도서출판 정일
- 임용자(1994). 성역할 관련 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정소영(1985), 의식향상훈련이 여성의 양성 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1), 82-92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or.kr).
- 한국여성개발원(1995). **자원활동 어떻게 시작할까요?**(교육자료 300-25).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용설명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0a), '99 상담 통계, **여성의 눈으로**, 1-2월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0b).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www.hotline.or.kr)
- Bargad, A., Hyde, J.S.(1991). Women's Studies: A study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181-201
- Chaplin, J.(1995). **Feminist Counseling in Action**, London:SAGE Publication
- Downing, Nancy & K. Roush(1985). From Passive 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for Woman. **Counselling Psychologist**. V.13, No. 4, 695~709
- Seu I. B. & Heenam, C. Ed.(1998). **Feminism & psychotherapy**. London:SAGE publication
- Worell, J. & Remer P.(199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New York:John Wiley & Sons.

A study on Feminist views of Counselors with a focus on Korea Women's Hot Line

Kwang-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minist views of counselors with a focus on Korea Women's Hot Line(KWHL). The subject of the study is 99 KWHL counselors and their feminist views are surveyed by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KGES) and the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Scale(FI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w almost the same scores as those from women's movement activists in the KGES. Second, their feminist identity has developed to the highest level of 'commitment', and it is followed by the level of 'revelation', 'embeddedness', and acceptance' in the FIDS. Third, the counselors in their thirties show lower scores in the 'acceptance' level than those in their forties. Fourth, the higher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is, the higher their gender egalitarianism is. Finally, full-time counselors show more developed sense of gender egalitarianism and advanced feminist identity compared with those from volunteers.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actice of feminist counseling in Korea which has its limitations, and its tasks in the future.